

23_5_한국어_小船入の常夜灯

고후나이리 상야등

오쓰시 지정 문화재

이 상야등(가로등)은, 이세 진구 신사(미에현)에
신앙과 참배객의 안전 기원을 위해,
1808 년에 교토와 오쓰의 사람들에 의해 건립된
것입니다.

에도 시대[A.D.1603-1867]에는 이 장소가
선착장으로써, 야바세(구사쓰시)와의
사이를 잇는 호상 교통의 거점이 되었습니다.
그리고, 이세 진구 신사의 참예자 등의 여행객으로
붐벼, 많은 찻집이 있었습니다.
당시는 이 부근이 선착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
있습니다.